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부활 대축일
제37권 21호(가해) 2017년 4월 16일

[목사]



예수님의 빈부됨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예수부활의 기쁨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전례시기의 정점.
다른 여타의 종교들과 구별되는 결정적 근거,
초기 공동체의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이유.

그리스도교 신앙의 결정적인 근거요 핵심적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대상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안에 생생하게 살아 계시는 분.

하늘만 쳐다보지 않고 이 세상 현실 속에서
그 현실과 직접 부딪히면서
그리스도를 실천적으로 증거하며 사는 사람.

일 년에 한 번 기념하는 축제일이 아니라
일상의 축제.

매일 매일 일 년 내내,
그리고 일생 동안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안에서
죽음과 부활의 빠스까 신비를
좀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자.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명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실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오후 1:00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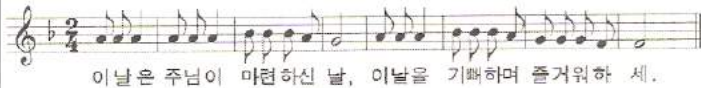
부활대축일
학생미사
&
낮 미사

본당 전체 교우들을 위한
교중 미사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postles) 10,34-37-43

화답송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 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하네.○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3,1-4<또는1코린5,6-8>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왔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계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 음
환호송 ○알렐루야.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복음 요한(John) 20,1-9

영성제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한국 교회의 역사

맺음말 - 한국 현대 교회사의 과제

현대 교회의 가르침과 인류에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국내의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도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연변의 조선족 노동자, 이슬람교나 다른 그리스도교 국가 출신 노동자에 대한 사목적 배려가 계속해서 요청되고 있다. 또한 한국 교회는 민족에 대한 봉사의 일환으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9세기 선교 신학의 유산인 정복론적 선교관을 극복하고 화해의 선교론을 개발해야 하며, 평화 교육 또는 민족 화해 교육을 시급히 실천해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민족의 복음화와 보편적 구원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다. 이를 통해 교회는 민족에게 진정한 평화의 복음을 심을 수 있다. 교회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언제나 복음의 원점에 서서 자신에 대한 반성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오늘의 교회는 지난 200여 년 동안 교회가 성취한 외적 성장이 곧 내적 성숙을 의미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200년 전의 신앙 고백과 오늘의 신앙 고백을 비교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교회의 봉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 교회는 늘 다시 태어나야 하며 쇄신되어야 한다. 이 다시 태어남과 쇄신은 모든 하느님 백성의 변화로 가능하다. 이 변화는 복음적 행동을 요구한다. 이로써 한국 교회는 더욱 복음적인 교회로 나아가면서 한국 민족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랑의 문화'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를 위한 꿈과 다짐이 한국 땅 모든 하느님 백성의 꿈이 된다면, 이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미래의 현실이다. 이 미래 현실의 역사의 서론은 지금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 주역은 이 땅의 모든 하느님 백성이다.

< 끝 >

2015년 10월18일(주일)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본란에 연재해온 '한국교회의 역사'가 이번 주일(2017년 4월16일)로써 끝을 맺었습니다. 다음주일부터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 받으소서'를 연재합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가

부활 대축일 낮 미사

입당	169
봉헌	165, 167
성체	163, 168
파견	170

매일 부활을 살아가기

알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곁에 머무르셨던 그분은 극한의 고통과 죽음을 몸소 겪으신 후 참으로 부활하심으로써, 한 줌 새로 사멸할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참 생명에 참여할 문을 열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기에, 사도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1코린 15,14)

이토록 중요한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떻게 자리잡고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본당 신부님께 큰 걱정거리 하나가 있었답니다. 언제부터인가 다람쥐들이 출몰하여 이리저리 성당을 뛰어다니는 통에 사람들이 미사 드리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신자들과 대책 회의를 하던 중 신부님은 한 가지 묘책을 고안하게 됩니다. 그 묘책이 무엇이였을까요?

바로 다람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시도 때도 없이 성당을 드나들던 다람쥐들이 세례를 받게 되자 이제는 일 년에 딱 두 번, 부활 때와 성탄 때에만 성당에 오게 되었다는 다소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쉬어 짐작하시듯, 이 이야기는 많은 분이 부활이나 성탄 같은 중요한 날에만 성당을 찾는 현실을 꼬집는 내용입니다.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이 오랜만에 당신을 찾아온 자녀들을 도끼 눈을 뜨고 바라보시지는 않겠죠. 오히려 갖가지 이유로 평소에는 주님을 잊고 살다가도 때가 되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듯 다시 성당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느님은 마치 명절에 곁에 차려입고 시골에 내려온 자녀들을 맞이하는 부모처럼 반갑고 애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어서 오렴, 와서 좀 쉬다

가렴....” 하고 맞아주시지 않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 많은 분들이 부활이나 성탄에만 성당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부활이나 성탄이 매년 돌아오는 연중 ‘행사’로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활은 일 년에 한 번, 봄이 되면 으레 울려 퍼지는 달달한 벚꽃 노래 같은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우리는 매일 악습과 죄에 물든 나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매일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먼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분이 활짝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아집과 자기에에 사로잡힌 나와 결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매일 결심하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 하겠습니까.

◆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당신이 있는 곳

버스정거장에 서면 차가 오는 쪽만 바라봅니다.

물 있는 곳으로 뿌리를 내리고

빛을 향하는 꽃처럼 그립니다.

기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간절한 쪽으로 몸을 돌려 세웁니다.

사랑하는 쪽으로 온 생애가 흐릅니다.

내 몸이 향하고 내 생이 기운 쪽에

당신이 있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보나마나 그렇습니다.

-이 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부활절야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남성철 베네딕도		이재용 안드레아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유지아 클라라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	김교복 레오		장영진 안토니오	제1독서	시무궁 루이스	김교복 레오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강혜원 아네스	제2독서	유보나 보나	김금자 테레사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서 2반	제물봉헌자			토서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알렐루야, 알렐루야 ♪♪♪ ♪♪♪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Happy Easter! Alleluiah.
 교우 여러분 가정에 주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성주간과 부활 대축일 전례를 위해
 수고해주신 본당의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엠마오스 여행 초대

-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본당 엠마오스 여행을 다녀옵니다.
- 일시 : 4월 17일(월요일) 8시 성당출발, 저녁 6시 성당 도착
 - 여행지 : 팜스프링 Aerial Tram 케이블카
 - 회비 : \$30,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4일 부터 월요일 새벽미사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7 예비자 교리반 모집 합니다.

- 교리기간 : 5.25~12.7 (목) 저녁 8:10~9:10
- 환영식 : 5. 21일 11시 미사 후 강당
- 세례식 예정 : 12월10일
- 연락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첫영성체 학보모 모임

- 일시 : 4월30일(주일) 10:30 AM
- 장소 : 2층 첫 영성체 교실
- 문의: 켈리 현 ☎(310)560-4968

◆ 2017 복음서 쓰기 대회 시상

올해 마태오복음 쓰기 대회 필사자입니다. 학생10명, 교사 5명, 그리고 학부모 8분께서 함께 필사하여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 학생

박세진(Sejin Park, 9), 이인수(Insoo Lee 9)
 장윤서(James Jang 9),정원영(Andrew Chong 9),
 최레이나(Rayna Choi 8), 박사무엘(Samuel Park 6),
 최라이언(Ryan Choi 6),한길미아(Veronica Hankil,6),
 이수인(Amy Lee 4), 장은서(Julia Jang 4)

● 학부모

김선미 데레사, 김수진 마리아, 김태은 비비안나
 박순진 엘리사벳, 성미선 리디아,이현지 레이첼,
 장주란 마리아,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주일학교 교사

Andrew Nam, David Hwang
 Kelly Hyun., Steve Oh, Sunny Hwang

◆2017 ~ 2018 학년도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

올해로 여섯번째를 맞이하는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가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 수혜대상 : High school 12학년 ~대학1~3학년 재학생
- 자 격: 본당 등록 신자의 자녀로서, 교회 활동과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 기간: 4.29.2017 ~5.31.2017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음.)
- 수여 예정일은 8.6.2017 (주일)
- 문의 : 본당 신부님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4월 16일:소고기 무국 (\$0 , 토남3반 봉사담당)
 *주일학교 : 샌드위치(5,12학년)
- 4월 23일: 카레라이스(\$ 3, PV2반)
 *주일학교 : 카레라이스(11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권태만 김기정 김봉녀 김상규 김옥찬 김원호 김은학 김철민 김택수 노혜숙 민경근 박정자 배태임 손 석 송영미 안종연 안태갑 오장님 오신재 원건희 이근태 이상석 이숙화 이은경 이인석 이일길 이정분 이종필 주대중 주용순 최기호 최미열 한장환 한창주 홍인표	권태만 김기정 김철민 노혜숙 민경근 박정자 손 석 안종연 안태갑 원건희 이상석 이숙화 이인석 이일길 이정분 주대중 주용순 최기호 최미열 한장환 한창주
합계:\$ 3,415	합계 : \$1,905
주일미사헌금 :\$ 2,504	

◆2017 성령채신 봉사자 세미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지소서"(루카 1,38)

- 일시: 5월 19일(금) 오후 3시~21일 (주일) 2박3일
- 장소: 아씨시 피정센터(Poverello of Assisi Retreat House)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91340
- 강사: 정건석 프란치스코 신부 (예수회소속)
- 참가대상: 각성당 기도회원 및 관심 있는 신자
- 준비물:성경, 목주, 필기도구, 세면도구, 겹,미사 지향 및 헌금
- 참가비: \$130.00(숙박비 포함)
- 문의:본당 성령기도회장 강혜원아네스 ☎(310)780-0369
봉사회 교육부 권글라라 ☎(562)228-5629
- 주관: 남가주 성령 채신 봉사회(K.C.R.M)714-343-4771

남가주 소식

◆2017 남가주 청년 연합회 주최 캠프 '침표'

- 주제: '공감'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여호1, 9)"
- 일시: 2017. 5. 19(금) ~ 21(일) 2박 3일
- 장소: 테메칼라 꽃동네 피정센터
37885 Woodchuck Rd 79 S Temecula, CA 92592
- 대상: 미혼 한인 카톨릭 청년 누구나
- 참가비: \$130
- 신청: 연합회 회장 임성오 바오로(714)388- 2366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최대제 신부 ☎ (213)248-9707
아그네스성당 ☎ (323)731-4433

◆제 37기 성 아그네스 성당 커피교육

- 강의: 2017년 4월23일(주일) 낮 1시~5시
24일(월)저녁 6시~10시 중 하루
- 교육방법: 첫날 3시간강의, 1시간실습,
첫 교육 후 10회 실습합니다.
- 교육비: \$200(당일 지불)
- 장소: 성아그네스성당 회의실
1451 Dana St. LA,CA 90007
- 문의: 성당사무실 (323) 731-4433

E-MAIL: ignhanddrip@gmail.com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제 메히틸다 713-4926	김정희 올리아 04/05(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장수영 패트리치오 04/22(토) 성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이정 카타리나 04/21(금)오후7시30분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김교복 레오 04/22(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최상단 사비노 04/08(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박명순 안나 04/15(토)오후12시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오창애 안나 04/21(금)오후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 테레사 04/17(월)오전11시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이남현 막시모 04/08(토)오후6시30분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박정희 마리아 04/10(월)오후6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윤진 카타리나 04/08(토) 오후6시 성당2층R3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4/7(금) 십자가의 길로 대체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김동진 스테파노 04/21(금)오후7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신혜정 로사 04/08 (토) 봄 야유회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박운모 아가다 04/11(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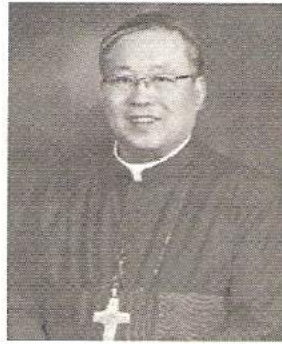
다음주일 단체모임

사목회의

1시

2017년 예수 부활 대축일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루카 20,38)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온 세상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우리는 예수 부활
대축일을 맞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남북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충만히 내리
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교의 핵심이자 우
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이며,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함, 모든
의혹과 인간적인 계산을 날려주는 강력한 바람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 2006.10.19.)

주님의 부활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절망이 아닌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 온 세상에 가득 퍼져 나가기 바랍니다. 특히 올
해 예수 부활 대축일은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끝없는 위
로와 기도를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세월호 참
사 희생자들이 하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고, 미수습
자들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 나라에 더 이상 무죄한 이들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
리 국민 모두가 생명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고, 이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빈 무덤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고,
(요한 20,1 참조) 무덤이 비어있다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증언
을 들은 두 제자는 예수님의 얼굴을 감췄던 수건과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요한 20,3-6)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어둠이 빛을, 불의가 정의를, 미움과
증오가 사랑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사도 중의 사도'라고 칭송한 마리아
막달레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고, 슬픔 속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이로써 그녀는 그리스도
부활의 첫 목격자이자 첫 증언자가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녀가 예수 부활을 알렸기에 두려움에 떨던 주님의 제자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희망을 굳게 믿어야 합
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혼란과 불안을 간직한 채 변화와 혁

신이 필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인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깊은 슬픔과 함께 새
로운 사회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게 했습니
다. 이 어려운 난국에서도 온 국민이 인내와 슬기를 가지고
헤쳐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변화의 시작에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봉사자를 뽑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와 그 결
과가 국민의 화합과 일치를 이루고 참다운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도 국가
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
해 봉사하고 공동선과 정의를 실천하며 우리나라의 통합과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봉사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국민으로
부터 선택받은 새로운 지도자가 갈등과 분열을 뒤로하고 화
해와 일치를 통해서 화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혼자 변화를 시키는 사람이 아니
라 국민과 함께 국민으로 하여금 변화를 이루게 만드는 사람
입니다. 하느님께 우리나라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좋은 지도
자를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며 '새로운 삶'
을 의미합니다. 즉 부활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모습에 따라 창
조된 새 인간을(에페 4,24 참조) 낳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를 낳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끝내 우리가 원하는 변
화를 가져오며 그 변화의 종착지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부활 신앙을 간직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나부터 새롭게 변화되면 부활은 우리 주변 곳곳
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실천
하고 있는 신앙 운동인 '답게 살겠습니다'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삶과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형
성되실 때까지 그분을 닮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이 됩시다. 주님께서 부활을 증언하며 어둠을 물리치고 다
양하며 선하고 긍정적인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우리
모두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함께하실 것입니다.(마태
28,20 참조)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
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을 맞아 평
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께 주님의 빛과 생명과 평화와 한
반도에 가득하도록 전구해주시길 청합니다.

2017년 예수 부활 대축일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미사 때 촛불을 켜는 의미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창세 1,3) 예로부터 성스러운 곳이나 성스러운 예식을 거행하는 데 빛이나 불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주님 성전에는 “등잔 일곱 개를 만들어 앞쪽을 비추도록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라.”(탈출 25,37)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요한 8,12)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마태 5,14)이 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촛불은 온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루카 2,32)

또한 초는 십자가상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초가 스스로 태워 빛을 주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활성야에 밝히는 부활초는 전례상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뜻하는 최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인의 성상 앞에 촛불을 켜 놓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덕을 상징하며, 전구를 청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 앞에 켜 놓는 것은 그들이 곧 주님을 뵈올 수 있기를 기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성사나 첫 영성체 예식 때, 수도서원이나 성품성사(聖品聖事) 때에 후보자들이 촛불을 받아들이거나 촛불을 들고 입장하는 것은, 촛불이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히듯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이웃을 위해 태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사 때 촛불을 켜는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하심,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을 나타냅니다. 미사 때 제대 위에 켜는 초 개수는 그날 전례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평일이나 기념일에는 2개의 초를 켜니다. 그러나 주일이나 축일에는 4개의 초를 켜니다. 또 대 축일에는 6개의 초를 켜니다. 교구장이 주례를 하는 경우에 한해 교구장 초를 밝힙니다. 일반적으로 교구장이 본당에 방문하실 경우에는 대 축일 미사나 특별한 미사(1등급)를 집전하시기 때문에 초를 7개 사용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례력(등급에 맞게 초를 밝히고 교구장 초(+1)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탈출 13,21)

Quiz성경 구절 중에서 공통되게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일까?

사할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이 있었다.(탈출 10,23)

그분께서는 그것은 온 하늘 아래로 올려 퍼지게 하시고 당신의 ()을 세상 가장자리까지 비치게 하십니다.(욥기 37,3)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이었다.(요한 1,4)

4월9일 자 정답: 4월9일 자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사회 교정

「성경 속 동식물」 15 이방인의 축제 때 사용한 담쟁이덩굴

담쟁이덩굴은 마카베오 하권에 등장한다.

“달마다 임금의 생일이 되면 끌려가서 지독한 강요를 받아 이교 제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디오니소스 축일이 되면, 담쟁이덩굴로 엮은 관을 쓰고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행렬을 하도록 강요 받았다.”(2마카 6,7)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축제 때 강제로 부정한 고기를 먹고 담쟁이덩굴로 엮은 관을 써야 했으니 유쾌하게 기억하는 식물은 아니다.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래보험/장래적금/장래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OE75182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바-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렌스 세플베다길

##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젤러리아 몰내)

G.G.:(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